

지역 소식통

부안군, 2023년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부안군은 군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산물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2023년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안군 통합브랜드인 '자연이 빛낸 보물 부안'을 포장재에 인쇄 제작 시 포장재 제작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총사업비 4억 원(보조 2억원, 자부담 2억원)을 투자하여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관내 농산물 생산 여부 등을 심사하여 86개소(개인 73개소, 법인 13개소)가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 개인은 최대 200만 원까지, 법인·단체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권오범 축산유통과장은 "농가들의 포장에 대한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민간전문가 위촉 도시디자인 조정·자문

전북 고창군이 지난 3일 고창군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로 김경실 예원예술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 교수를 고창군 공공디자인 총괄조정관으로 위촉했다.

공공디자인 총괄조정관은 고창군의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 공공디자인 분야의 사업 전반에 대해 기획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자문하는 민간 전문가이다. 임기는 2년이 고 비상근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자문 대상은 △청사 내·외의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행사상 사업의 공공매체 △가로표화사업, 경관디자인사업, 건축물의 건축사업, 공공시설물 설치사업 등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의 수준 높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안전한 수돗물 공급 '총력'

### 정읍시,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 246억원 투입... 누수량 절감 효과 '기대'

정읍시가 시민들의 물 복지 실현과 누수 저감을 통한 상수도 경영개선을 목표로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K-water 정읍관리사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정읍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정비 완료율 목표는 추진되며 사업비는 총 246억 원이 투입된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상동, 수성동, 장명동 등 정읍시 주요 지역에 매설된 20년 이상 노후화된 상수관로 21km와 밸브 등의 부속 시설물을 교

체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 첫해부터 지난해까지 장명동 배수지에서 수돗물이 공급되는 상동, 장명동 일대의 노후 관로 9km 구간을 교체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는 마곡 배수지에서 공급되는 수성동, 연지동, 장명동 일대에 매설된 12km의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가 진행된다.

이들 지역은 과거 상수도에 대한 재투자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 생산비 상승,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어 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물 공급과 더불어 누수량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과 요금 수입 증가를 통해 지방상수도의 경영수지도 대폭 개선되어 주민들의 가정경제와 정읍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공사인 만큼 공사 현장의 불편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동물등록 통한 보호·복지"

### 부안군,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90% 지원 개체 수 조절 나서

부안군은 농촌지역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4,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3월부터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은 마당이나 울타리 안에서 풀어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가 고령화 되고 상당수 세대가 개를 풀어 기르는 등 관리 소홀에 따른 무분별한 번식으로 유실·유기되는 문제가 대두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군은 사업시행을 위해 2월 말에 관내 동물병원 3개소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부터 읍·면사무소에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추후 사업을 희망하는 견주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중성화 수술비와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병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에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권오범 부안군 축산유통과장은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을 통한 유실·유기견 발생을 억제하고 내장형 인식칩을 삽입하는 동물등록을 통한 동물보호와 복지 확대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작년 158두의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실시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 부안군 악취 사냥꾼 '악취모니터링 방제단' 운영

### 제로화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부안군은 2023년 악취 제로화를 위해 청정 부안군 이미지를 해치는 악취를 잡기 위하여 악취 사냥꾼 '악취모니터링 방제단'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안군에 따르면 악취모니터링 방제단은 5명으로 구성되며, 부안군 전역을 3개 권역(농공단지, 부안을 주변, 기타 지역)으로 나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17개소, 실시간 기상 및 악취 측정)과 이동식 악취 측정 및 포집 차량을 활용하여 악취 발생 주요지역

을 일일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악취 발생 시 방제차량을 이용해 악취저감제 살포 등의 조치로 악취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한다.

또한, 봄·가을 영농철에 미부숙된 퇴비·액비 살포에 따른 악취 발생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비·액비 살포 방법 및 기준을 경작농가 및 축산농가에 안내하고 악취 발생 시 악취모니터링 방제단이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생활환경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사전 조치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부숙된 액비와 퇴비

살포 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부안군 환경과장은 "악취모니터링 방제단을 활용하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생활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악취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 석정온천, 방문의 해 맞이페이백 이벤트 열어

고창군 석정온천휴스파에서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입장료 1만2000원중 2000원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Payback)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창군의 3대 명소(고창읍성, 고인돌 박물관, 선운사) 무료 개방에 이어, 고창 석정온천의 페이백 이벤트 진행으로 고창 관광의 탄력과 지역 경제 활력소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석정온천휴스파는 프랑스 루르드 샘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정받은 게르마늄 온천이다. 노화 방지와 인체내 노화된 부분을 재생시키는 효과와 피부미용과 고혈압, 당뇨병, 신경통, 만성 류머티즘, 관절염, 협심증 등 성인병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5000여 명이 동시 이용 가능한 쾌적하고 여유 있는 라커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실내·외 온천 시설은 물론 푸드코트, 카페테리아, 수영장, 유아방, 전용 휴게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고창군은 이달 31일부터 4월2일까지 고창 석정온천 일대에서 제1회 고창

벚꽃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석정온천휴스파 관계자는 "본격적인 봄철 나들이 시즌 국내 온천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이벤트를 제공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2023년 유아숲체험원 이용기관 모집

정읍시가 2023년도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을 정기 이용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집한다.

유아숲체험원은 정읍시가 아이들의 정서적 교육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정읍시공원 일원에 조성한 도시 숲이다.

아이들이 숲에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친환경 놀이공간이자 교육 시설이다.

시는 이곳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유아숲지도사를 활용해 계절별·주제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 진행할 예정이다. 숲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정기모집과

수시반으로 나눠 평일 2회(오전 10:30~12:00, 오후 13:30~15:00)에 걸쳐 진행된다.

정기반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3일부터 13일까지 정읍시청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산림복지과 담당자 이메일(hyn0852@kocae.kr)로 접수하면 된다.

수시반은 목요일에 한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정읍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을 통해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유아숲체험원에서 인성과 창의성, 면역력을 기르며,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익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행안부 적극행정 '최고등급' 선정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성과 △적극행정 체감도 등의 항목을 평가했다.

이화수 시장을 포함한 전 공무원들은 '시민이 공감하고 공무원이 실천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공직 내 적극 행정 분위기 확산과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적극 행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공무원 보호 지원, 적극 행정 실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행정 문화 정

착에 앞장섰다. 또, 적극행정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합리적인 규제 발굴·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와 주민 애로 해소에 이바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전라북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총물로 20여 년간 장기 방치된 미준공 대형건축물 해결방안" 추진으로 도내 유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화수 시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정을 믿고 협조해 주신 시민들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동참해준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 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